

지역사회 경찰활동 관점에서 본 현장 경찰활동

Field Police Activity Focused on Community Policing

김현동*, 이문수**, 조현빈*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경찰교육원

Hyun-Dong Kim(i0sac@nate.com)*, Moon-Soo Lee(lms1508@hanmail.net)**,
Hyun-Bin Jo(johyunbin@korea.com)*

요약

최근 치안환경의 급변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경찰에 대한 기대와 범주의 두려움에 대한 안전이 높아지고 있으며, 경찰과 지역주민들과의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조성하는 전 국가적 경찰활동의 패러다임으로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 경찰활동도 변화하여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일환으로 2003년부터 지역경찰제를 시행 중이며, 최근에는 정부 추진에 따른 안전도시 프로그램의 실시, 다문화 가정 보호활동, 외국인 범죄 대응,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등과 같이 범죄예방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활동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세 가지 구성요소인 전략 지향적 경찰활동(SOP),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NOP),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POP)의 현장중심활동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 중심어 : | 지역사회 경찰활동 | SOP | NOP | POP | 현장중심 경찰활동 |

Abstract

Recently, with the sudden change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expectations towards the police and fear towards safety are increasing. Thus, the local community police operation, which creates a mutually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ce and local residents, is coming to the fore as the paradigm of the nationwide police operation. The police operation in Korea has also gone through change, and as part of the local community police operation, Korea has implemented a community police system since 2003. Recently, the system has been going through change in that the operations are centralizing around not only prevention of crime including the safe city program, protec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response to foreign crime, protection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but also life security of the citizens. Along these lines, this study seeks to examine conditions of the three elements of local community police operation - Strategic Oriented Policing (SOP), Neighborhood Oriented Policing (NOP), Problem Oriented Policing (POP) - and policy suggestions accordingly.

■ keyword : | Community Policing | SOP | NOP | POP | Field-Centered Police Activities |

I. 서론

오늘날 경찰과 지역주민들과의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조성하는 전 국가적 경찰활동의 패러다임으로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총체적으로 그들 대부분을 대표한 지역의 구

접수번호 : #130321-002

접수일자 : 2013년 03월 21일

심사완료일 : 2013년 04월 23일

교신저자 : 조현빈, e-mail : johyunbin@korea.com

성원과 시민조직들과 함께 협력증진을 위한 노력에 의해 부분적으로 정의되었다. 경찰은 우선사항을 두고 그들의 전술을 발전시킴으로써 대중과 함께 대응하기를 요구한다. 효과적인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경찰이 시민들의 요구에 직면 시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과 지역사회의 요구 양쪽에 대한 시민의 투입에 반응이 요구된다. 이것은 그 자신의 문제에 있어 공적정의라는 심각성을 가져왔다. 이것이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단지 특정 프로그램이 아니라 조직적 전략이라 할 수 있다.

1970년대와 80년대 미국의 경찰활동은 전통적 경찰활동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과 비판을 제시하는 도전의 시기를 보냈다고 한다면 1990년대 미국 경찰활동은 이러한 의문과 비판을 토대로 경찰 기능의 확대를 통해 새로운 경찰활동 분야를 개척해 나가는 혁신의 시기를 보냈다고 할 수 있다[1].

지난 30년간 미국의 경찰활동은 이렇듯 중요한 변화와 혁신의 시기를 지나왔다. 이러한 시기를 거친 미국의 경찰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본 임무, 경찰활동에 필요한 핵심 전략들의 성격 그리고 그들이 봉사하는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문제지향적 경찰활동(problem-oriented policing), 무관용 경찰활동(zero tolerance policing), 컴스탯(compstat) 등과 같은 경찰활동의 혁신 사례들이 등장하게 되었다[2].

특히 널리 알려진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나 컴스탯 같은 프로그램들은 처음에 이들이 목표했던 바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입증해줄 수 있는 어떤 경험적 증거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역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3].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한국 경찰활동도 변화하여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일환으로 2003년부터 지역경찰제를 시행 중이며, 최근에는 정부 추진에 따른 안전도시 프로그램의 실시, 다문화 가정 보호활동, 외국인 범죄 대응,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등과 같이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활동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4].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경찰활동 중 현장중심활동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개념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경찰과 지역주민이 범죄문제, 범죄에 대한 공포, 물리적·사회적 무질서 등의 문제를 상호 신뢰관계 속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철학이자 전략이며, 이를 통하여 경찰은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촉매자 역할을 수행하고 주민은 문제해결 결과에 대한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고 정의된다. 따라서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경찰이 지역사회 공동체의 모든 분야와 협력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아울러 무질서를 비롯한 다양한 치안관련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5].

2.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구성요소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첫 번째 요소는 전략 지향적 경찰활동(Strategic Oriented Policing: SOP)이다. 이러한 전략 지향적 경찰활동의 목적은 범죄적 요소나 사회 무질서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고, 지역사회를 교정하는데 있어서 지역사회에 그 기초를 확립할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두 번째 요소는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Neighborhood Oriented Policing: NOP)으로서, 경찰과 지역주민사이의 의사소통 방식을 개방하고, 공동체 의식을 조장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일체의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개념이다[6]. 세 번째 요소는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Problem Oriented Policing: POP)으로서, 지역사회 내에서 무엇이 범죄와 사회무질서의 원인인가를 파악하고, 그 문제들의 해결책들을 마련하면서 가장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수행하기 위한 경찰과 사회의 협력을 의미한다[7].

3.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선행연구 검토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CPTED, 시민경찰학교, 자율방범대, 방범간담회 등의 현황분석이나 인식 및 태도와 관련된 실증분석이 대부분이다. 현행 실행프로그램을 제외한 실질적으로 한국 경찰의 정서에 맞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우선 경찰관·지역주민들의 인식 개선 및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예산의 확보 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실무적용 사례와 그에 따른 정책적 제언을 논하고자 한다.

III. 현장중심 경찰활동의 운영실태

1. 전략 지향적 경찰활동의 운영실태

1.1 여름경찰서

여름 경찰서는 해양 레저객이 증가하는 하계 피서철 해수욕장 개장기간(7~8월)동안 각종 범죄와 무질서로부터 국민들의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해역별 주요 해수욕장을 선정(경포, 해운대, 대천)하여 인력·장비집중 투입, 안전과 치안을 총괄하여 24시간 근무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서장을 해양지방경찰청에서 경정급으로 보하여 해양지방경찰청 주도로 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세부적으로 사무지원팀(행정, 민원, 수사요원 배치), 순찰구호팀(백사장 순찰, 응급조치, 야간순찰 병행), 장비운용팀으로 역할 분담하여 다각적인 치안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 2005년부터 총 122개소의 여름경찰관서를 개설하여 경찰관을 배치, 순찰정과 구명환 등 안전장비를 갖추고 관계기관 및 의료기관, 사회단체 등과 합동으로 수상안전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매년 평균 600여명 이상의 귀중한 생명을 구조해 오고 있다. 여름경찰서 운영은 각 운영지 마다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개장일정을 정하고 경찰서 단위로 운용되며, 경찰청과 지방청 단위에서는 매년 7월 1일에 개장하여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여름관서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표적인 피서지인 해운대의 여름경찰서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전종근무경찰관은 3조 2교대로 운영되며[8], 지원경력으로 의경과 기동대가 있고, 이들의 경우 경찰관과 동일하게 3조 2교대를 원칙으로, 여름경찰서 또는 인근 치안센터 등

을 이용한 숙영을 하고 있다. 활동내용으로는 첫째, 방범활동의 일환으로 도난사건 예방 및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백사장에서 일어나는 도난사건이 많으므로 성수기에는 사복을 착용시킨 의경을 파라솔 주변에 잠복시켜 면밀히 관찰하여 절도범을 검거하는 등 지원경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비수기에는 도난사건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 전개와 함께 호객행위 예방 및 인도상 오토바이 질주행위 예방 등 백사장 위 호안도로나 인도를 순찰한다. 둘째,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계도의 일환으로, 해수욕장 파라솔 운영단체들의 호객행위를 사전에 점검, 단속조치하고 숙박업소들간 경쟁으로 인한 호객행위를 단속하는 등 질서문란행위를 수시로 점검 및 계도하는 등의 활동을 펼친다. 셋째, 청소년 선도행위의 일환으로, 숙박업소의 미성년자 혼숙행위와 술, 담배 판매 등 단속 및 청소년 일탈행위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위 여름과출소의 경우 여름철 지역주민과 상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범죄와 무질서로부터 안전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여름철 한시적으로 특정지역, 특정대상을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한 경찰활동의 대표적 사례라고 사료된다. 특히, 2011년에는 최초로 여경구조대를 창설하여 전국 해수욕장에 본격적으로 투입하였다. 여성 해양경찰관으로 구성된 여경구조대는 여성 익수자를 남성 구조요원이 구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접촉 등에 대한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성범죄 피해 예방 및 해수욕장에서 여성의 민원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창설되었으며, 기본적인 인명구조활동 외에 응급처치와 미아찾기 및 성희롱 범죄예방, 검거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차별화된 현장 맞춤형 경찰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 요구 수준에 맞는 안전한 해수욕장 환경을 조성하였다[9].

1.2 한강경찰대

한강 경찰대는 서울 시민의 대표적 휴식공간이면서도 투신자살 등이 늘어나는 한강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2005년 7월 27일 서울지방경찰청 소속하의 한강경찰대를 창설·운영하고 있다. 한강경찰대는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소속으로서, 한강 경찰대장을 경정

으로 보하고 있으며 망원·뚝섬·이촌·광나루 등 4개 치안센터를 운영하고 경찰관 31여명, 12척의 경찰정을 배치하여 행주대교에서 강동대교 간 총 연장 41.5km의 구역을 주·야로 범죄예방 및 단속, 안전유지, 자살방지 등 인명 구조 및 번사체 인양 등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경찰은 한강 이외에도 상시 위락객이 운집하는 강원 춘천 소양 의암호, 충북 충주 대청호 등 전국의 주요 호수에도 수상 안전요원 및 경찰정을 배치하여 인명구조 활동을 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1.3 산악구조대

웰빙 열풍과 주 5일제 시행 등 건강 및 레저생활에 대한 현대인의 관심 증폭으로 인해 산을 찾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산악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여, 산악의 지리 및 기상변화에 대한 사전지식 부족과 기본과적인 무리한 산행이 안전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 이에 경찰은 산악구조대를 운영하여, 사고발생이 잦은 산악지역에 등반능력이 뛰어나고 응급구조 교육을 받은 경찰관을 중심으로 활발한 구조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북한산, 도봉산,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 등 5개 주요 산에 6개의 산악구조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산악구조대는 사고발생이 잦은 산악지역에 지역주민들의 응급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과 같은 전략적 목적수행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1.4 지하철 경찰대

대도시 교통난 심화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 증가의 여파로 지하철은 그 적시성과 편리성 및 뛰어난 수송역량을 인정 받아 이용객이 늘어가면서 이에 따른 소매치기, 폭력, 성추행 등 범죄의 증가와 함께 국제 테러조직의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범행 가능성도 높아지면서도, 2005년 7월 18일 창설되었다. 지하철은 주민들의 중요한 교통수단이므로 이에 따라 경찰은 지하철 역 구내에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지역 등 5개의 지하철 경찰대 및 광주지역 지하철 출장소에 경찰관을 배치하게 되었다. 2012년 현재 서울의 경우는 2개 수사대(8개 수사팀

과 16개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하철경찰대 요원들은 전동차 내에 승차하여 소매치기, 성폭력 등의 범죄를 예방 및 검거하거나 2인1조로 역구내를 순찰하고 있다. 위와 같이 지하철 내 범죄행위에 대한 전략적인 대책마련의 하나로 지하철 경찰대를 운영하고 있다.

1.5 CPTED

과거 건축설계 및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경제성과 편의성만을 고려하고 치안요소를 소홀히 하여 범죄취약 지역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면서 경찰은 이에 대한 전략적 접근방법으로 기존에 경찰력 투입에 의존하는 범죄예방 순찰활동 방식에서 벗어나 범죄를 유발하는 물리적인 환경개선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을 시행하고 있다. 과거 우리 사회는 건축설계 및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 경제성과 편의성만을 고려하고 치안요소를 소홀히 하여 범죄취약 지역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기존 경찰력 투입에 의존하는 순찰활동을 통한 범죄예방 방식에서 벗어나 범죄를 유발하는 물리적인 환경개선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시행을 추진하게 되었다. 국내 최초로 CPTED 전문가 양성교육 과정을 운영하면서 연간 160명의 전문 경찰관을 양성하고 있으며, CPTED 적용의 기초적인 기준마련을 위한 산·학·관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하고 있고, 또한 국토해양부에 CPTED 제도화에 대한 법령개정을 요구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범죄예방의 내용을 추가하기도 하였다[10]. 또한 경찰은 지방자치단체등과 협의를 통해 각종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뉴타운 사업 등에 지식경제부가 개발한 표준안의 적용 사례를 측정하여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CPTED를 통한 경제성을 홍보하여 건설 회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등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활동을 경찰활동에 도입하는 등 거시적이면서도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인 경찰활동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2.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의 운영실태

2.1 자전거 순찰대

자전거 순찰대는 전형적인 차량 중심의 순찰활동에서 “꼼꼼하면서도 느린 순찰” 활동 전개로 지역주민들과의 접촉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찰의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의 하나이다. 즉, 도보와 자전거, 차량순찰을 접목시킨 것으로, 최초로 2007년 8월 17일 대전둔산경찰서에서 자전거 순찰대 발대를 시작으로 현재 한강 자전거 순찰대, 충남지방경찰청, 울산지방경찰청 및 전국 단위의 자치단체도 자전거 순찰대를 운영 중에 있다. 자전거 순찰 집중 대상지역으로는 아파트 및 원룸 등 주택밀집지역과 학교, 학원 밀집지역 주변, 공원 등 여가활동 공간 주변, 다중인파 운집장소 등이며, 주민과 대화하는 순찰활동, 청소년 선도 및 계도활동, 지리안내 등 대민 봉사활동, 기초질서 문란행위 계도 및 단속활동, 범죄발생시 신속출동과 긴급차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근무방법은 주5일 근무로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기후와 계절상태를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휴대장비로는 무전기, 가스총, 삼단봉, 수갑, 경적 등이다. 위 자전거순찰대의 가장 큰 목적은 전형적인 차량순찰로 인한 지역주민들과의 접촉 저하원인을 제거하고 지역주민과의 만남을 통해 지역치안 안전 확보에 주력하는 것이 주 임무이다.

2.2 이동 경찰서

이동 경찰서는 농촌 등 소외된 취약계층을 찾아가 민원 상담 및 방법심방 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지역주민과의 의사소통 향상 및 지역치안 안전성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의 하나이다. 이러한 이동경찰서는 각 경찰서별로 자체 시책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각 과별 담당자와 민원업무 담당자, 협력단체들이 함께 농촌 등 소외지역을 방문하여, 민원상담과 더불어 민사사건에 대한 구제제도 설명 및 창문 열림 경보기 부착 등 방법심방 활동을 전개하고, 노인들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특히 소외지역을 방문하여 평소 치안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던 지역주민들에게 치안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지역문제 등에 대한 첩보 및 정보를 입수하고, 그에 맞는 전략적 경찰활동을 전개하는 모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의 대표적 사례라고 사료된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이웃 지향적 치안활동의 하나로 ‘111 사랑나눔운동’, ‘농촌사랑 1사1촌 운동’, ‘직거래장터’, ‘사랑의 헌혈운동’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 지원활동과 같은 경찰활동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10].

2.3 시민경찰학교

시민경찰학교는 경찰활동에 주민들이 실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생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별로 2~4주에 걸쳐 15~20시간씩 실시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경찰관들의 생생한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한 경찰활동 강의, 지역범죄 예방을 위한 주제로 합동 토의, 지구대 및 112신고센터, 유치장 견학과 각종 경찰 단속활동 현장 체험 등으로 구성된다. 2011년 한해 동안 전국 61개 경찰서에서 시민경찰학교를 운영하여 총 1,686명이 수료하였으며 교육생들은 치안현장 체험을 통해 경찰업무의 이해 및 신뢰를 높일 수 있다[10]. 교육 수료 후 교육생들은 거리질서 및 청소년 선도 캠페인 등 여러 분야의 민경 협력 치안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시민경찰학교 운영 또한 지역 주민들과의 접촉을 향상시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내 문제점을 확인하는 동시에 경찰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의 사례라고 판단된다.

2.4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는 지역 주민이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읍, 면, 동 단위로 조직한 봉사협력단체로 대원 3~5명이 한 조를 이루거나 경찰과 합동으로 취약시간대 순찰활동을 전개하면서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10]. 자율방범대는 전국적으로 3,856개 조직에 10만 1천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2011년 한해 동안 4,752건의 범죄를 신고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657명의 형사범을 검거하는 등 지역치안 활동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경찰은 자율방범활동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근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지역 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

2.5 생활안전협의회

주민참여를 통해 공동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구대별로 생활안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의 요구사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사회 안전활동 강화차원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구성은 지구대별로 15인에서 20인 이내의 위원이며, 지구대별 분기 1회 또는 치안센터별 월 1회 개최하고 있으며, 지역별 특별 범죄예방 등 치안대책 마련이나 다중시설 안전활동 및 대테러 조치 필요시, 교통사고 예방 및 기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임시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 위원회의 임무는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 관련 사항을 협의하고, 지구대내 자율방범조직의 운영에 관한 구심체 역할을 함과 동시에 활동에 대한 자문을 받으며, 각종 지역 안전 캠페인 및 민경합동 안전활동 전개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즉 지구대장과 파출소장 등 지역경찰관리자나 순찰요원들은 지역주민과의 접촉 기회를 증대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치안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6 아동안전 지킴이집

아동안전 지킴이집은 2007년 12월 안양 초등학교 납치 및 성폭력 살인사건, 2008년 3월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 사건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2008년 4월경 “아동부녀자 실종사건 종합치안대책”의 일환으로 경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전국의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변의 통학로, 놀이터, 공원 주변 상가인 문방구, 편의점, 약국 등을 아동안전 지킴이집으로 지정하여 위기에 처한 아동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업주가 아동을 임시보호 하고 경찰에 즉시 연락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마련된 협력치안시스템의 하나이다. 평소 협력치안활동에 적극적이거나 사회복지 활동 등으로 지역 내 덕망이 높은 주민들이 운영하는 업소를 지킴이집으로 선정하여, 매월 1회 이상 지역경찰이 위 업소를 방문하여 아동안전에 관한 수시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접촉을 통한 지역문제 청취 등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2011년 기준으로 24,094 개소의 아동안전 지

킴이집이 운영 중에 있으며, 주로 아동의 접근성이 용이한 학교 및 유치원 주변 등, 하프길 주변으로 편의점과 약국 등 아동의 출입이 용이한 상가를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다. 경찰청(2011년)에 따르면, 133건에 182명의 범인검거 및 지원활동, 범죄예방 및 보호실적을 거두고 있다. 또한, 편의점 협회, 대한약사회, 중소기업청 산하 나들가게와 각각 운영협약을 체결하여 신뢰 업소 위주로 지킴이집을 위촉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고정된 형태의 지킴이집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하여 움직이는 지킴이집 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안전 수호천사”를 도입하였다. 2011년에는 태권도 사범, 모범택시기사 등 다양한 단체들과 협약을 맺어 어린이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대한민국 재향 경우회와 대한노인회 소속 회원들이 아동안전 지킴이로 위촉, 선발되어 아동대상 범죄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위 아동안전 지킴이 제도는 2008년 아동범죄 다발지역 11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을 하다가 현재 전 경찰서로 확대 운영 중에 있으며, 아동안전 지킴이 사업은 경찰청·보건복지부·대한민국 재향 경우회·대한노인회가 공동 운영하고 있고,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지원,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은 보건복지부가, 인력풀 구성과 인력관리, 수당지급은 경우회와 대한노인회에서 분담하고 있으며, 경찰에서는 지킴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위급상황시 행동요령 등 교육과 지구대장 관장하에 명확한 임무부여 및 근무감독 등 전반적인 근무 실태 관리를 맡고 있다. 실제로 아동안전 지킴이로 위촉된 지역주민들의 경우 등하교 시간대에 학교주변 및 놀이터 등을 순찰하면서 학교폭력, 성폭력, 유괴 및 실종 등 아동범죄 예방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신고접수된 사건현장에 출동하는 등 부족한 경찰인력을 보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지역주민들을 치안활동에 참여시키면서 동시에 지역경찰과의 접촉도를 향상시켜 지역주민과의 친밀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아동안전 지킴이집과 아동안전 수호천사제도, 아동안전 지킴이 제도와 같은 협력치안시스템 제도들 또한 경찰이 운영하는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의 일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3.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의 운영실태

3.1 경제팀 수사담당관 제도

경제팀 수사담당관 제도는 접수단계부터 전문 상담 체제를 도입하여, 민사사건의 고소율 감소 및 민사구제 절차 안내를 통해 국민만족도를 제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민사사건에 대한 형사고소율 증가와 이로 인한 수사력 낭비로 인해 위와 같은 문제 점을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의 일환이라고 할 것이다. 위 제도는 2012년 9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별 실정에 맞게 4가지형 모델을 제시(팀장 상담형, 별도 상담조사팀 구축형 등)하여 이 중 한 가지 모델을 선택하여 전문적인 상담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즉 고소장 접수 전 고소인과의 상담을 통해 민사사건일 경우 이에 대한 설득과 반례, 이와 더불어 민사구제절차 등 구제방안을 설명해 줌으로써, 지역주민의 문제해결과 더불어 고소율 증가라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종전에 수사담당관 제도 시행 전에 고소장 반례에 따른 검찰 재접수로 경찰에게 재하달됨으로 인해 문제가 되었던 부작용을 해소하고 형사사안이 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민사구제절차를 설명해 줌으로써 피해금 회수를 지원해 주는 등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의 대표적 사례라고 사료된다. 특히 경제팀 수사담당관 제도의 경우, 실제로 민원인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내부 경찰관들의 반응이 좋아 제도시행에 공감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의 대표적 사례라고 사료된다.

각 경찰서별 우수사례들 중 몇 사례를 살펴보면, 울산남부서의 경우 여행사 계약불이행으로 2천만원 상당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소한 피해자에게 민사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피해금 회수 지원을 받게 된 사례, 광주청의 경우 지방청 자체 경제팀 교육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초빙하여 민사구제절차를 교육하고, 이후 민원인과 상담시 민사절차에 대해서 적극 안내함으로써 실제로 고소장 접수율 하락 및 고소인들의 민사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등 각 경찰서별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할 것이다.

1319팀은 2010년 2월 24일 김길태 사건, 2010년 6월

7일 김수철 사건 등 아동성폭력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2010년 7월 경찰청은 아동성폭력 범죄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고 성폭력 범죄에 대한 수사강화를 위해 각 지방청 여청계에서 1319팀을 신설, 운영 중에 있다. 중점 수사 대상으로는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사건, 연쇄 및 광역성 사건, 피해자가 다수인 성폭력 사건 및 전국 성폭력 기소중지자 검거를 중점 대상으로 검거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위 수사대 운영 또한 성폭력 범죄에 한정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 사회 전체에 큰 악영향을 초래하는 범죄행위 단절을 목적으로 운영중인 제도라고 할 것이다.

3.2 원스탑지원센터원터치 SOS서비스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별도의 전문 조사 및 의료를 위한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원스탑 지원센터 또한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의 일환으로 사료된다. 원스탑 지원센터는 성폭력 등 범죄피해를 당한 여성과 아동의 체계적 보호를 위해 2005년 8월 경찰병원에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탑 지원센터”를 최초로 개소한 이래 전국적으로 원스탑 지원센터가 개소, 운영 중에 있다. 현재 각 지역별로 총 22개소의 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여성경찰관·상담사·간호사 등이 24시간 상주하면서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의료 및 상담, 수사, 법률 등의 통합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남자경찰관으로부터 조사시 발생할 수 있는 성적 수치심 등의 문제 및 경찰서와 같이 개방된 조사실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때 생길 수 있는 2차 피해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 여경만을 배치하여, 여경이 전적으로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고, 이후 상담사가 심리 치료를 병행하며, 성폭력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를 치료하는 의료 지원등이 한번에 지원될 수 있도록 경찰서와 별개로 독립적이고 폐쇄적인 별도의 안정된 공간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병원진료 후 피해자가 진술녹화 및 조사작성을 위해 경찰서에 가야 하는 번거로움과 남자 경찰관 앞에서 조사받아야 하는 성적 수치심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원스탑 지원센터 내 진술녹화실을 설치하여 이중조사

및 수치심 유발을 방지하고 있으며, 피해자 진료 및 증거채취를 위해 최첨단 의료장비를 갖춘 영상진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피해자 안정을 위해 상담실과 침대 및 소파를 갖춘 피해자 안정실을 구비하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지원과 범죄피해자 구조에 관한 무료 법률상담도 병행하고 있다. 2011년 한해 동안 윈스톱 지원센터는 성폭력 등 12,722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 28,240건, 진료 7,647건, 증거채취 3,641건, 진술녹화 4,201건, 피해자 조서 작성 7,674건 등을 처리하였으며, 특히 윈스톱 지원을 통한 신분노출에 대한 부담으로 법적 대응에 소극적이었던 피해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에 대응할 수 있게 문제해결 되었다는 점에서 위 제도는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의 중요한 제도중 하나라고 사료된다. 특히 위 윈스톱지원센터는 일본에서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우수제도로 보도되고,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견학을 위해 방문할 만큼 여성 및 아동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적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척결의지의 하나로 아동과 여성 대상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윈터치 SOS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위 제도는 범죄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위치정보 기반의 윈터치 SOS·112 앱과 U-안심서비스를 결합한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윈터치 SOS 서비스는 위치정보 이용에 동의한 휴대폰 사용자가 112 신고를 할 경우 서비스 가입시 기재했던 신상정보와 현재 위치정보를 112신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신상정보와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신고 및 범죄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아동과 여성 대상 성범죄와 강력범죄 발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의 하나라고 사료된다.

3.3 외국인 도움센터

외국인 도움센터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체류 외국인의 신변보호 및 범죄피해 신고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교단체 등에 “외국인 도

움센터”를 개설하여 경찰의 도움을 보다 쉽고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센터이다[9]. 위 외국인 도움센터에서는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와 접수된 민원의 관계기관 통보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인 도움센터는 2012년 전국 16개 지방청에 290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청과 경찰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도움센터의 적극적인 외국인 보호 능력 등을 토대로 체류 외국인들의 범죄피해 예방과 실질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외국인 대상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대상자 유형에 따라 맞춤형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기초질서 및 안전교육, 생활법률과정’을, 다문화 가정 자녀는 ‘청소년 범죄예방’을 국제결혼 부부는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유학생은 ‘유학생 범죄예방’ 과정으로 세분화하여 실시하고,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폭행, 협박, 보이스피싱 등 외국인들이 모르면 저지르기 쉬운 범죄유형과 가정폭력과 아동성폭, 성범죄, 사기, 절도 등 생활속의 범죄예방요령 및 범죄신고 요령 등 실생활에 밀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 도움센터는 외국인 대상 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한 문제해결식 경찰활동이라 사료된다.

3.4 지구대·파출소에 수사 경과자 인력 배치

현재 경찰은 수사경과 제도를 두고 수사부서(형사과, 수사과, 여청과 등)에 수사경과자들을 배치하여 수사업무 수행만을 위한 인력배치를 해 오고 있는데, 이는 다른 부서에 수사경과자들을 탄력적으로 배치하지 못하게 만들어, 특히 지구대 및 파출소에 수사 및 범죄검거 능력 부족의 문제점을 낳게 되었다. 실제로 지역경찰의 경우 112신고 접수 대응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민원인들의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수사적 능력이 필요함에도 수사경과자 제도 추진 이후 비탄력적인 인력배치로 인해 지역경찰의 수사능력 부족이 문제점을 대두되어 왔었다. 이에, 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구대 및 파출소에도 적정인력의 수사경과자를 배치하여 수사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 인력배치의 하나라고 사료된다. 특히 수사

경과자들이 정계성 발령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이면서도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 인력배치의 하나로 지역경찰의 수사능력 향상을 위해 수사경과자들을 배치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IV. 제언 및 결론

전략 지향적 경찰활동은 특정한 목표 수행을 위해 전략적인 경찰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치안환경에 적합한 전략적 경찰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국가경찰 체제하에서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재량권의 부족으로 인해 예산집행의 불용통성, 경찰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지역 특수성에 적합한 맞춤형 경찰활동 전개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전략적 경찰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기 위해서는 지방경찰에 대한 지역별 재량권을 강화하고, 특수한 전략적 경찰활동을 수행하는 지역에 예산과 인력을 추가 편성하고 실적거양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업무담당 경찰관들의 사기진작 고양 등 전략적 경찰활동들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의 경우 자칫 각 지역별 지휘관과 실무자들의 근무태도와 의식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보여주기식 이벤트성 행사에 그칠 수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즉, 경찰관들의 적극적인 수행 의지가 명확하지 못하고 타율적으로 수행되거나 경찰청 또는 지방경찰청에서 명확한 운영 방침을 설정해 주지 않는다면, 이벤트성 행사 또는 수박겉핥기식 운영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보여주기식 제도 운영을 위해 철저한 준비와 예비검토 없이 졸속으로 운영되어 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신중을 기하여 경찰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현재 경찰청의 성과측정 방식 자체가 범인검거 및 단기간의 범죄억제효과 등 보이는 실적 위주의 단기 평가 때문에, 지휘관들이 위와 같은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을 소홀히 할 수 있는 위험성도 크다고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의 경우 다른 지역사회 경찰활동과는 달리 단기간에 눈에 보여지는 실적 창출이나 산입이 힘들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위와 같은 경찰활동을 수행하는 현장 경찰관들의 경우 자신의 업무에 대한 조직의 저평가, 실적 미산입 등으로 인해 사기가 저하되고 이는 결국 업무효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의 일환으로 현재 농촌지역을 관리하는 일부 경찰서에서는 치안센터를 직주일체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위 직주일체형 치안센터를 농촌지역뿐만 아니라 소외지역이나 순찰이 힘든 원거리 지역에 집중적으로 직주일체형 치안센터를 확대하여 모든 지역주민들이 동등하게 치안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 밀착형,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와 같은 경찰활동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경찰활동을 수행해 나가고 있는 제도들이 많이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주민들과 현장 경찰관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 제도들 중 특히 경제팀 수사상담관 제도의 경우 경찰이 본연의 업무인 수사사건의 개입이 아니라 개인적인 민사사건까지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인해 경찰 업무 분장 및 업무 범위 정립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민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 과정에서 적극적 해결을 위해 민원인의 돈을 받아 주기 위한 도구로 전략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업무 한계와 정립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또한 문제해결식 경찰활동의 경우, 경찰 본연의 업무 또는 현재 업무 외에 문제해결을 위해 추가 업무를 담당하게 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업무량 증가와 인력 부족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된다. 인력부족과 과도한 업무량, 정립되지 않은 업무한계는 경찰관의 사기저하와 근무의욕을 상실시켜 결국 형식적 제도운영을 초래하여 국민신뢰 제고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인 만큼 명확한 업무한계 지정과 더불어 인력증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와 더불어, 실제로 문제 해결식, 이웃 지향적 경찰

활동의 적극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경찰의 눈과 귀가 되고 있는 청문감사기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현재의 청문감사실의 기능은 경찰서 또는 지방청 내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감찰과 비리조사 기능에 머물고 있으나, 이에 벗어나 조직 외적으로 지역주민들과 접촉하여 지역의 현안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분석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하여, 보다 적극적인 청문감사기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1] D. Weisburd, "Hot spots policing experiments and criminal justice: Lessons from the field,"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599, pp.220-245, 2005.

[2] D. Weisburd and A. A. Braga, *Introduction: understanding police innovation*, In D. Wiesburd and A. A. Braga (eds.), *Police Innovation: Contrasting Perspectiv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3] D. Weisburd and A. A. Braga, *Hot spots policing as a model for police innovation*, In D. Wiesburd and A. A. Braga (eds.), *Police Innovation: Contrasting Perspectiv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4] 양문승, "국내외 지역사회경찰활동 프로그램의 비교분석 및 발전방안", *한국경찰연구*, 제10권, 제3호, pp.55-84, 2011.

[5] 조철욱, *경찰학개론*, 대영문화사, 2012.

[6] W. M. Oliver, *Community Oriinted Policing: A Systemic Approach to Policing*, Prentice Hall, 1998.

[7] 이황우, *경찰행정학*, 법문사,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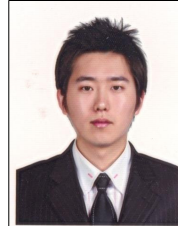
[8] 해양경찰청, *해양경찰백서*, 2012.

[9] 경찰청, *경찰백서*, 2012.

저 자 소 개

김 현 동(Hyun-Dong Kim)

정회원



- 2005년 2월 : 관동대학교 국제통상학과(경제학사)
- 2010년 2월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경찰학석사)
- 2011년 9월 :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박사과정)

▪ 현재 : 순천향대학교 경찰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 범죄피해자보호, 청소년범죄, 경찰조직, 경찰인사

이 문 수(Moon-Soo Lee)

정회원



- 1987년 2월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행정학사)
- 2002년 8월 : 부산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석사)
- 2012년 3월 : 순천향대학교 경찰학과(박사과정)

▪ 현재 : 경찰교육원 교무과장(총경)

<관심분야> : 범죄피해자보호, 경찰조직, 경찰인사, 위기관리

조 현 빈(Hyun-Bin Jo)

정회원



- 1999년 2월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행정학사)
- 2001년 8월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법학석사)
- 2004년 8월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경찰학박사)

▪ 현재 :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관심분야> : 청소년범죄, 위기관리, 경찰조직, 경찰인사